북한 축구, 비상식적 행보 계속 … 돌연 EAFF 챔피언십 불참 선언

북한 축구가 평양 '무관·중무중계' 남북대결에 이어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챔피언십에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축구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뉴시스' 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동아시안컵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최근 불참 통보가 왔다." 고 전했다. 불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대한축구협회가 참가를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시안컵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중심이 돼 2년마다 열린다. 2017년 대회는 일본에서 열렸고, 올해 대회는 부산이 개최지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이 남자부,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이 여자부에 출전할 예정이다. 대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출전국과 일정이 변경되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조별리그 3차전을 '깜깜이' 로 진행해 대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에 어긋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보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축구는 내년 2월과 6월에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은 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 북한과 A조에 속했다. 여자 대표팀이 겨루는 올림픽 최종예선은 한국, 북한뿐 아니라 복수의 국가가 참가하기 때문에 개최지 변경이 불가하다. 북한이 한국을 찾지 않는다 해도 대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북한은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내년 6월에는 남자 대표팀 간의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조별리그의 리턴매치가 열린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경기에 이은 한국 홈 경기로 아직 경기장은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이 안전이나 기타 사유를 들어 한국에서 경기를 할 수 없다며 제 3국 개최를 요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자 축구 올림픽 최종예선전과는 달리 홈앤드어웨이 방식인 월드컵 2차예선은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 3국 개최도 가능하다.

워싱턴, 월드시리즈 첫 우승 … 창단 50년 만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7전4승제) 정상에 올랐다.

워싱턴은 30일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6-2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3패로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워싱턴 D.C.를 연고로 한 메이저리그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1924년 이후 95년 만이다. 1969년 창단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후신 격인 워싱턴 내셔널스는 몬트리올 시절 포함 창단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워싱턴 D.C.로 홈을 옮긴 지 14년 만이다. 워싱턴은 또 원정경기에서만 4승을 거두며 챔피언에 오른 사상 첫 메이저리그 팀이 됐다.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상은 2차전과 6차전에 선발 등판해 2승을 거둔 워싱턴 선발투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에게 돌아갔다. 월드시리즈에서 14⅓이닝 4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2.51의 빼어난 성적을 남겼다.

워싱턴은 7차전에서 전 사이영상 수상자인 맥스 셔저가 선발로 등판했지만 6회까지 0-2로 끌려갔다. 휴스턴 선발 제인 그레인키를 상대로 좀처럼 안타를 뽑아내지 못했다. 워싱턴은 그러나 7회 앤서니 렌던이 첫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막혔던 타선이 폭발했다. 휴스턴은 그레인키가 후안 소토에게 볼넷을 내주자 불펜투수 윌 해리스를 올렸지만 이것이 사실상 패착이 됐다.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하위 켄트릭이 해리스로부터 역전 2점홈런을 뽑아내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다. 워싱턴은 8회에도 소토의 적시타로 4-2로 달아났고, 9회에도 애덤 이튼의 2타점 안타로 2점을 추가해 월드시리즈 첫 우승을 달성했다. 워싱턴은 2014년 샌프란시스코 이후 5년 만에 와일드카드 팀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둔 팀이 됐다.

워싱턴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결정전(단판 승부)에서 밀워키 브루어스를 4-3으로 따돌리고 디비전시리즈(5전3승제)에 올랐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3승2패로 물리쳤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승제)에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전전승으로 밀어내고 팀 창단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올해 메이저리그 최다승(107승55패)을 거뒀지만 워싱턴의 돌풍에 밀려 2년 만에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스테픈 커리, 왼손 골절 부상 골든스테이트 초비상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즌 초 부진 속에서 간판스타 스테픈 커리까지 왼손 골절 부상으로 이탈하는 초대형 악재까지 맞았다.

지난 31일 '뉴스1' 에 따르면 스테픈 커리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피닉스 선즈와의 2019-2020 NBA 정규시즌 홈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3쿼터 도중 손을 다쳤다. 커리는 골든스테이트가 54-83으로 뒤지던 3쿼터 초반 골 밑을 돌파해 들어가다가 피닉스 센터 애런 베인즈와 부딪쳐 함께 엉켜 넘어졌다. 베인즈의 몸은 커리의 손목 위로 떨어졌고, 커리는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다 코트를 떠났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경기 뒤 "커리가 베인즈와의 충돌로 커리의 왼손 뼈가 부러졌다." 며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커리의 부상 부위를 정밀 진단한 뒤 수술 여부와 복귀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ESPN에 따르면 커리는 왼손 검지 중수골(손허리뼈)이 부러졌다.

지난 5시즌 동안 연속으로 파이널에 진출하며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골든스테이트는 주 득점원이었던 케빈 듀란트의 이적에 이어 클레이 톰슨의 부상까지 겹쳐 득점력 공백이 나타나며 개막 후 3연패 뒤 겨우 1승을 올렸다. 하지만 이날 커리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는 위기 속에 더욱 힘든 시즌을 치르게 됐다. 골든스테이트는 이날 경기도 110대121로 완패하며 1승 4패를 기록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1288호 낱말퍼즐 정답

1 겨	레	■	2 바	3 이	러	4 스	■
우	■	■	■	불	■	5 키	6 위
7 내	8 홍	■	9 홍	보	■	■	선
■	10 살	며	시	■	■	11 방	자
12 교	문	■	■	13 식	중	독	■
두	■	■	14 자	비	■	15 면	16 허
17 보	18 필	■	릿	■	■	■	깨
■	19 기	성	세	대	■	20 랍	비